

The Cup Of Life, 나의 월드컵 | 8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현역시절 자신이 입었던 대표팀 유니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투지 넘치는 수비로 상대 공격수를 벌벌 떨게 했던 족쇄맨은 1994년 미국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출전을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여기고 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네덜란드전 0-5 쇼크…그날 이후 오렌지 쳐다도 안 봐”

〈1998년 프랑스월드컵〉

1994년 주전 부상에 월드컵 출전 행운 썩씨 43도 체력전…뽕탕 효과 좀 봤죠
캡틴으로 똬 프랑스월드컵 가장 아쉬워
당시 네덜란드 스크린플레이 가히 충격

최영일(51)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1년의 프로선수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상대 공격수에게는 항상 부담스러운 수비수였다. 투지가 넘쳤고 몸싸움을 특히 잘했다. 28세의 늦은 나이에 처음 국가 대표 유니폼을 입었던 그는 1994년 미국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월드컵 본선무대를 밟았다. 스페인~볼리비아~독일~네덜란드. 월드컵 본선에서 그가 상대했던 나라다. 수첩을 뒤적이며 20여 년 전의 기억을 열심히 되살린 그의 월드컵 추억이다.

●C조 3위로 16강 진출 실패했던 미국월드컵

-비 오는 순천의 맨땅에서 만들어낸 1994년 월드컵 대표 자리
“도하에서 벌어진 최종예선 때 출전하지 못했다. 본선을 앞둔 동계훈련 때 2명의 스위퍼(정종선 박정배)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타가 필요했다. 마침 소속팀 울산 현대의 전지훈련 차 순천에 있었다. 박경화 기술위원장이 순천으로 선수를 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맨땅에서 연습경기를 했는데, 평소처럼 쇠 뽕(스티드)이 박힌 축구화를 신고 나가서 상대 공격수들을 다 깔아버렸다. 워낙 투지 있게 플레이하니까 대표선수로 뽑아졌다. 울산 현대의 브라질 전지훈련 도중에 대표팀 차출통보를 받았다. 그 때 아내가 ‘최영

일은 대표팀에 가봐야 뽕뽕 선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줬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악에 바쳤다. 죽기살기로 했고, 미국월드컵 3경기 모두 주전으로 뛰었다.”

-주먹구구식 선수분석으로 대회를 준비했던 미국월드컵

“대표팀 감독의 친구(윤성규 전 수원 삼성 단장)분이 독일에서 가져온 비디오를 보고 전력분석을 했다. 그냥 경기장면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선수 각자가 자신이 맡아야 할 선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했다. 나는 수비수로서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 헤딩능력, 어느 발을 사용하는지, 헤딩 타점과 어느 지점에서 돌파를 시작하는지를 봤다. 그 선수가 겁이 많든지, 돌파 때 어느 쪽으로 도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봤다. 독일 스페인은 자료라도 있었지만 볼리비아는 없었다.”

-더위와의 전쟁이었던 6월 17일 스페인전, 27일 독일전

“1차전 스페인전, 3차전 독일전이 벌어진 델러스 코튼보울 구장은 평지에 구덩이를 파고 그라운드를 만든 구조였다. 평지에 스탠드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더웠는데 지하의 그라운드에는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 찜통 같았다. 한낮에 경기를 했다. 얼마나 더웠는지 가수 방실이가 응원을 왔다가 더위를 먹고 쓰러질 정도였다. 그나마 우리는 이런 더위에 익숙했지만 유럽 선수들은 아주 힘들어했다. 스페인전은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갔다. 독일전 때도 40도를 넘었다. 상대 선수들이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힘들어서 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골을 먹었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체력전에는 우리가 유리했다.”

-미국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았던 이유는

“대회를 앞두고 타워호텔에서 한 달간 합숙 훈련을 했다. 이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3000만원을 들여 체력보강용으로 뽕탕을 해줬다. 매일 호텔방으로 선수 1인당 뽕탕 팩 2개씩 넣어줬다. 룸메이트 선배가 뽕탕을 싫어해 그것까지 다 먹었다. 뽕탕의 효과는 정말 있었다. 그 때는 조리사도 동행했는데, 덕분에 선수들은 잘 먹었다.”

-2차전 볼리비아전 무승부로 날아간 강남의 아파트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어서 조 2위가 아니라도 16강에 올라갈 기회는 있었다. 스페인과의 1차전을 너무 잘해서(2-2로 비김) 볼리비아만 이기면 16강에 간다는 희망이 컸다. 정몽준 회장이 16강에 가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만한 돈을 모두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결국 0-0으로 비기면서 아파트는 날아갔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무실점했던 경기였다. 2번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골을 넣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마음은 없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2-3'으로 패했던 독일전에서 아쉬웠던 그 중거리 슛

“클린스만이가 2골을 넣었다. 박정배가 마크 전담이었다. 세계적인 선수다웠다. 공을 살짝 띄워놓고 슛을 하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한 박자 빨랐다. 확실히 좋은 공격수는 타고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독일 선수들은 먼저 3골을 넣어서 그랬는지 더위에 지쳤는지 후반에 긴장이 풀린 것이 보였다. 우리가 3-2로 추격하면서 계속 몰아붙였다. 시간만 더 있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다. 막판에 내게도 득점기회가 있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는데 독일 선수들이 뒤로 물러났다. 오픈찬스가 보여서 중거리 슛을 날렸다. 그 전에 홍명보가 중거리 슛을 넣은 것

도 생각이 나서 ‘나도 영웅이 한 번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때렸는데 상대 골키퍼가 선방했다. 그 슛이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E조 4위로 허무하게 끝난 프랑스월드컵

-부상으로 월드컵을 포기할 위기였지만 의지로 이겨내다

“프랑스월드컵 때는 대표팀 주장으로 참가했다. 대회 4개월 전에 왼 무릎이 돌아가는 부상을 당했다. 영국 전지훈련 중 마지막 경기에서 당한 부상이었다. 수술이나 김스를 했다면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꼭 본선에 간다는 의지로 재활을 하면서 버텼다.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대표팀 사령탑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선수가 나왔다. 울산 현대시절 3년간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운동한 것을 기억했던 감독의 배려에 감사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1-3'으로 역전패했던 6월 13일 멕시코와의 1차전 숨겨진 이야기

“먼저 골을 넣고 1-3으로 역전 당했지만 그 결과에 앞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마지막 그라운드 적응 훈련 때 사고가 났다. 훈련 마지막 10분 동안 선수들이 각자 몸을 푸는데 김태영이 중거리 슛 연습을 했다. 하필 그 강한 슛을 이상윤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다. 기절한 이상윤의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였다. 다행히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몸은 아니었다. 보통이라면 이상윤 스스로 출전을 포기했을 텐데 월드컵 본선이다 보니 본인도 출전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트레이너도 몸 상태를 본 뒤 출전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줬지만 이상윤은 자기가 경기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멕시코전을 뛰었다. 여기에 하석주까지 퇴장을 당했으니 우리가 가진 전력

의 100%를 발휘하지 못했던 경기였다.”

-6월 20일 네덜란드전 0-5 대패의 기억

“프랑스월드컵에서 유일하게 내가 출전했던 경기다. 처음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자리가 비어서 풀랐는데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스탠드에 온통 오렌지색만 보였다. 네덜란드 응원단의 열기에 기가 죽었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죽기살기로 뛰었다. 월드컵은 선수들에게 이적을 위한 중요한 무대인데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서인지 네덜란드 선수들은 전반에 2골을 넣고도 전혀 봐주지 않았다. 빠르고 정신이 없었다. 기억나는 것은 네덜란드 공격수들의 스크린플레이였다. 상대 공격수를 막으려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공격수가 와서 교묘하게 막았다. 파울을 하지 않고도 슬쩍 뺄방을 놓는 이런 기술은 처음 봤다. 대회를 앞두고 프랑스에서 네덜란드 선수들의 경기영상을 보고 분석을 했지만 이런 기술은 자료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했던 경기였다. 나중에는 ‘저것들이 인간인가’ ‘혹시 약을 먹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뛰어다녔다. 관중들은 계속 왕왕거리면서 우리를 주눅 들게 했다. 지금도 그 날의 트라우마가 있어 여전히 오렌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김중원 전문기자 marco@donga.com

최영일

▲생년월일=1966년 4월 25일 ▲출생지=경상남도 남해군 ▲출신학교=장산초~동래중~동래고~동아대 ▲프로선수 경력=울산 현대~부산 대우~랴오닝 푸순~안양 LG(프로통산 266경기 출전, 3골) ▲국가대표 경력=1994년~1998년(통산 55경기) ▲지도자 경력=동아대 감독

V리그 뉴스스테이션

송희재, 삼성화재 품으로…드디어 우승퍼즐 완성했다

타이스 재계약 이어 FA 송희재까지
박철우-송희재-타이스 3각편대 구성



삼성화재가 프리에이전트(FA) 레프트 송희재(26)를 품에 안았다.
복수의 배구계 소식통은

17일 “삼성화재와 송희재가 이미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식발표만 남겨졌을 뿐, 모든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FA 대어급 중 시장에 남은 마지막 선수로 평가받던 송희재에 대해 강한 구매를 펼쳤다. 무엇보다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이 강한 애착을 보였다.

레프트 출신인 신 감독은 2016~2017시

즌 직후 부임한 때부터 레프트 보강을 숙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심 마음에 담았던 FA 서재덕이 한국전력에 잔류하면서 훗날을 기약해야 했다. 2017~2018시즌을 마친 뒤에는 FA 최대어로 꼽히는 전광인을 시야에 넣었으나 현대캐피탈이 더 적극적이었고, 빨랐다.

그러나 신 감독은 전광인 이상으로 송희



송희재

재를 원했다. 주전 레프트였던 류윤식이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 송희재가 절실히 필요했다. 마침 삼성화재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타이스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 류윤식이 빠져나간 자리에 송희재만 들어오면 완전체 전력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섰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라이트 박철우~레프트 타이스와 송희재로 짜여진 공격 3각

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배구계에서는 “송희재의 수비력은 전술적으로 삼성화재에 필요하다. 송희재가 가세해 삼성화재도 우승후보 전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송희재의 삼성화재 행으로 남자배구 주요 FA 선수들의 행선지는 정리됐다. 전광인(연봉 5억2000만원)이 현대캐피탈로 이적했고, 한선수는 역대 최고연봉(6억5000만원)으로 대한항공에 남았다. OK저축은행 이만규(연봉 4억5000만원)와 송명근(연봉 4억원)은 잔류를 선택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